

‘아바타’로 하나님을 이야기해 보세요



유경상 (크리스천싱킹센터 대표, 기학연동역회 정회원)

‘뉴에이지 영화’에 무게 두기보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초점 맞추면 유익

전 세계에 걸쳐 영화 <아바타>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관객 수가 800만을 넘어섰고 곧 외화 사상 첫 1000만 관객이라는 기록을 작성할 태세이다. 곳곳에서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2010년 새해 첫날 신년예배를 드린 후 함께 나오던 중학생들이 주고 받던 대화의 주제도 <아바타>에 대한 것이었다. 언론에서도 <아바타> 열풍에 대해, 특히 ‘아바타 우울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황청에서도 <아바타>에 대해 “종교 대신 자연 숭배를 부추기는 영화”라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인터넷상에서 아바타와 뉴에이지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리더로서 우리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아바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다.

<아바타>를 영화로 보기

영화 <아바타>는 판도라 행성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3D와 CG(Computer Graphic) 기술을 동원해 우리를 판타지 세계로 인도한다. 개인적으로 영화 속의 판도라 세계는 나의 무딘 호기심을 자극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황홀한 미지의 세계였다. 그 숲 속에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빛이 나오고,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산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상상력의 표현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영화 <아바타>는 또한 에텐동산이나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만의 목적을 향해 자연세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탐욕도 보게 한다.

아이들이 영화를 어떤 특정 주제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전에 영화를 영화로 보았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고 아빠에게 와서 책보다 더 재미있고 실감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이처럼 영화가 제공하는 이야기의 세계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풍성히 들려줄 수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많아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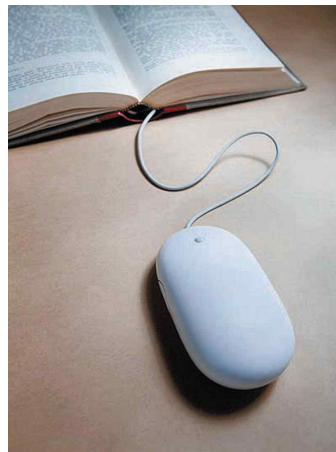
<아바타>를 세계관으로 보기

그러나 아바타의 이야기는 단순히 판타지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세계관을 담고 있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뉴에이지 세계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판도라의 세계에서는



여신 에이와로 대표되는 대자연의 울타리 속에서 사람과 동식물 모두가 교감을 하며 살아간다. 영화 속의 나비족들은 동식물을 그들과 동등한 존재처럼 존중하며, 여신 에이와를 숭배한다. 이것은 곧 사머니즘을 반영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신이며, 인간 역시 신이며,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뉴에이지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아바타 이야기에 흐르고 있는 뉴에이지 세계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세계관이 신(창조주), 인간(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 자연(칭지기로서의 인간이 관리해야 할 피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는 다른 것임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와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일 것이다.

아바타가 뉴에이지 영화라는 것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아바타를 포함해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반문화적 자세만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문화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아바타의 뉴에이지 영향력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관점이다. 만약 이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아바타'가 뉴에이지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아야 하거나 보더라도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아바타>에 흐르는 뉴에이지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영화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신 에이와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아바타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아바타>를 보면서, 비록 그것이 다른 세계관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영화 <아바타>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육체와 정신의 분리에 대한 문제, 외계인의 존재 등 기독교적으로 생각해 볼거리들이 많다.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보기

<아바타>의 흥행 열풍이 파생하는 하나의 이슈가 '아바타 우울증'이다. 특히 3D영화를 본 관객들 중에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언론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외계 행성 판도라에 대한 매혹에서 찾는다.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오염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한 불안정한 현실에 비해 아바타의 판도라 세상은 유토피아이다. 그 결과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을 더욱더 혐오하게 되며, 심지어 판도라의 세상을 동경하여 도피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관 근저에 흐르는 심층적 문제들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왜 <아바타>에 매료되고, 뉴에이지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다. 러처드 마우는 그의 책 「왜곡된 진리」(CUP)에서 그것을 희망과 두려움이라고 부른다. 그는 사람들이 특정한 세계관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희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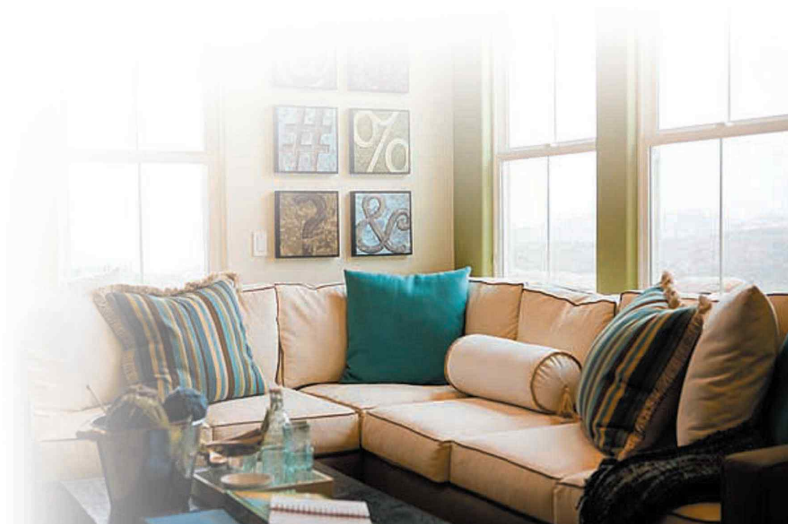


지만, 오직 복음만이 희망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와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다른 세계관에 대한 비판이기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며 그들에게 참된 해결책인 복음을 제시하는 구령의 열정이라 할 수 있다.

‘아바타를 통해 하나님 이야기하기’ 질문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우리가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지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게 될 때 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교회학교 시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 Q1. <아바타>를 보고 느낀 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Q2. <아바타>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 Q3. 그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요?
- Q4. 최근 ‘아바타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될까요?
- Q5. 이 영화를 통해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자는 CTC(크리스천싱킹센터) 대표이며, 분당 샘물학교 교재개발 연구간사이다. 학창시절부터 세계관 사역자의 비전을 소명으로 생각했으며 DEW 세계관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학교, 교회, 선교단체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 관련 강의 및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